

싱가포르의 ‘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 현황과 시사점¹⁾

‘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 of Singapore and its Implication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싱가포르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 국가이다. 싱가포르의 2011년 합계출산율은 1.2명으로 우리나라의 1.3명 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경제 발전을 이룬 싱가포르는 저출산 문제 역시 우리나라 보다 먼저 경험하였다. 과거 높은 출산율로 인해 강력한 출산 억제 정책을 추진해 왔던 싱가포르는 합계 출산율이 1.62명으로 낮아진 1987년 시점부터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s(M&P Packages)”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추진 초기에 출산 장려적인 성향이 강했던 M&P Packages는 2004년부터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선화하였다. 정책 슬로건 역시 출산 장려적인 성격의 구호인 “키울 수 있으면 세 자녀 혹은 그 이상 낳자(Have three, or more if you can afford it)”에서 “싱가포르, 가족들이 살기 너무나 좋은 나라(Singapore. A great place for families)”로 변경하였다.

2013년부터는 M&P Packages 정책의 범주를 결혼, 주거, 출산 및 임신, 자녀 양육, 일과 가정 생활 양립, 아버지 양육 참여의 여섯 분야로 확대하였고 급여 액수 등 지원액도 증액하였다. 최근 들어 싱가포르의 M&P Package 정책은 일과 가정 생활 양립 및 여성 근로자 지원에 보다 많은 강조를 두고 있다. 싱가포르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1987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출산율이 초저출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사회 환경

1) 본고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의 2013년 학술 용역 사업으로 수행한 ‘신윤정, 유재언, 김혜영, 윤자영(2013). 동아시아 국가 가족 정책 비교 연구: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하였음.

개선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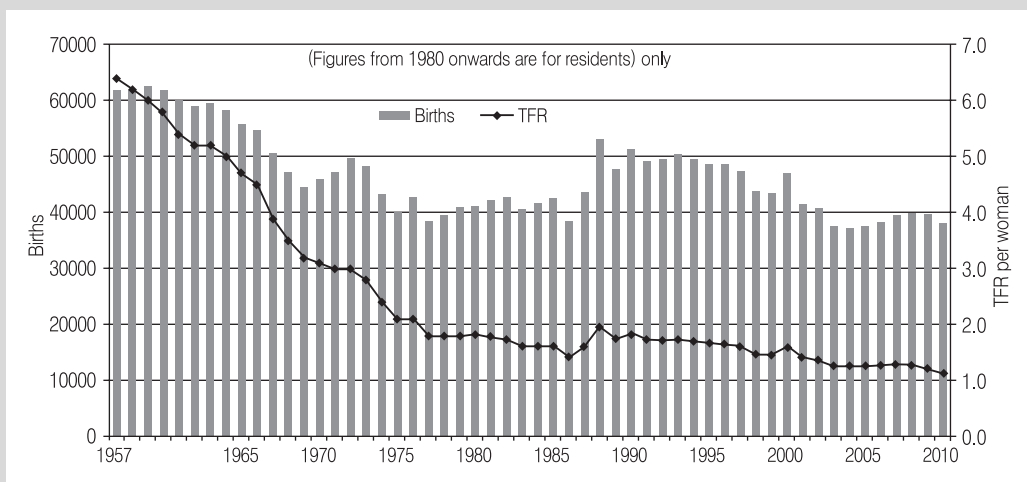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의 인구 정책은 '자녀를 낳을 것'을 강조하던 과거 정책 기조에서 최근 들어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전환은 동아시아 저출산 국가가 기존의 출산 장려적 정책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반성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싱가포르와 유사하게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경험한 후 출산율이 초저출산 수준으로 하락한 우리나라에게 싱가포르의 정책은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싱가포르의 M&P Packages의 주요 내용과 현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싱가포르의 출산·가족구조·여성 경제활동 현황

과거 1957년에 약 6명의 수준을 보이던 싱가포르의 합계 출산율은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65년 4명으로 하락하고, 1975~1976년 기간 동안에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하였다. 이후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여 1987년 M&P Packages 정책 도입 시 싱가포르의 합계 출산율은 1.6명 수준이었다. M&P Packages 추진 이후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약 1.7명 이상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1997년 이후 출산율은 다시 1.6명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그리고 이후의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특히 도시 국가로서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의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후의

그림 1. 싱가포르의 출생아수와 합계 출산율 추이(1957~2010년)

(단위: 명)



주: 1980년 이후 TFR은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신윤정, 유재언, 김혜영, 윤자영(2013), 동아시아 국가 가족 정책 비교 연구: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초저출산 수준 이하로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최근 싱가포르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실업률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반등하지 않고 있으며 초저출산 수준인 1.3명 이하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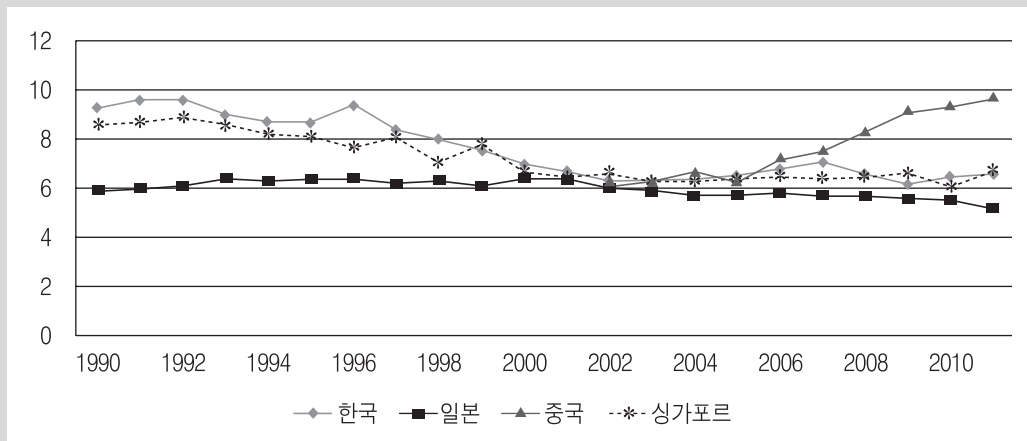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출산이 결혼한 부부 관계에서만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따라서 결혼 건수가 감소하고 초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0년 8.6건에 달하던 싱가포르의 초혼인율은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2년 6.7건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 초혼 연령도 1990~2012년 기간 동안 여성은 25.3세에

서 28세로 증가하였으며 남성 28세에서 30.1세로 증가하였다. 혼인 건수의 감소 및 초혼 연령 증가에 따른 출산율 감소는 싱가포르 가구 규모의 축소를 가져왔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4.9명에 달하던 싱가포르의 평균 가구원 수는 2000년에 4명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2011년 현재 3.5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의 출산율이 저하하게 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원인 중의 하나는 여성 교육 수준 향상에 따른 여성 취업률의 증가이다. 도시 국가로서 천연 자원이 부족한 싱가포르는 독립 국가로서 성장하는 초기부터 인적 자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여성 노동력 활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수행하여 왔다²⁾. 이 결과 싱가포르

그림 2. 초혼인율(1990~2012년)

(단위: 천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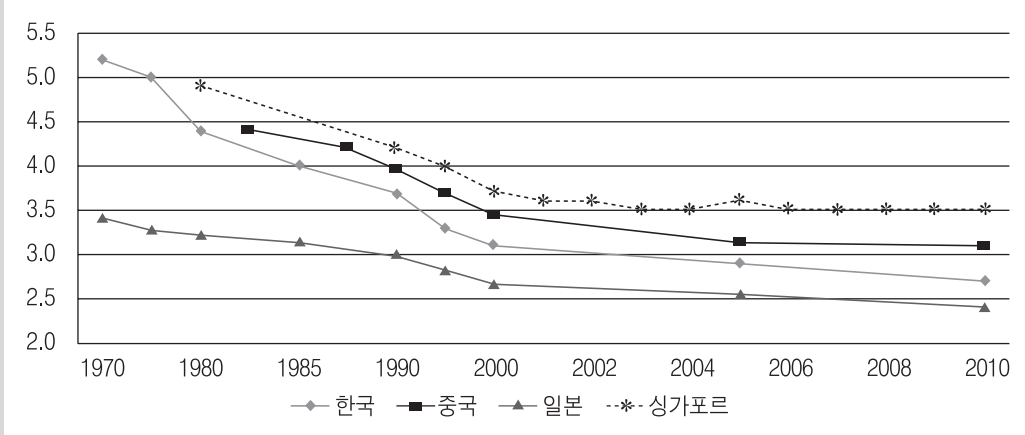


주: OECD Family database 관련 지표: Chart SF3.1.A The decline in crude marriage rates
 자료: 신윤정, 유재연, 김혜영, 윤자영(2013). 동아시아 국가 가족 정책 비교 연구: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

2) Yap Mui Teng(2009). "Ultra-low fertility in Singapore: some observation" in Ultra-low fertility in Pacific Asia: Trends, causes and policy issues edited by Gavin Jones, Paulin Tay Straughan and Agelique Chan, Routledge Research on Public and Social Policy in Asia.

그림 3. 4개 국가의 가구 크기와 추이(1970~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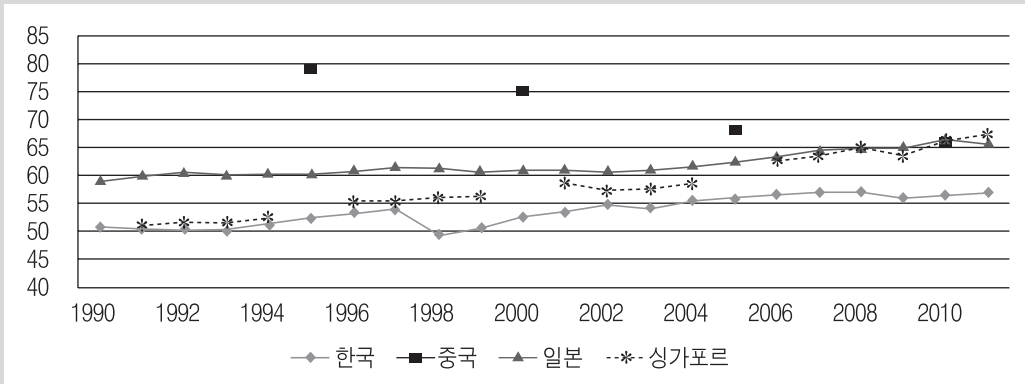
(단위: 명)



주: OECD Family database 관련 지표: Chart SF1.1.A Average House Size
 자료: 신윤정, 유재언, 김혜영, 윤자영(2013). 동아시아 국가 가족 정책 비교 연구: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

그림 4. 여성 고용률(1990~2012년)

(단위: %)



주: 1) 싱가포르의 경우 영주권을 가진 25~64세 여성의 취업률로서 종합 노동 조사가 1990, 1995, 2000, 2005년도에 수행되지 않아 해당 연도 자료가 부재함.
 2) OECD Family database 관련 지표: Time series-female employment rates LMF1.6
 자료: 신윤정, 유재언, 김혜영, 윤자영(2013). 동아시아 국가 가족 정책 비교 연구: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

의 여성 고용률은 지난 20년 동안 상당 규모의 성장을 보였다. 싱가포르의 여성 고용률은 1991년 50.8%로 일본의 60.1%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1년 67.4%로 상승하여 일본의

65.8% 보다 높으며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 57.1% 보다도 10% 포인트 이상으로 높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인식과 지위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지만 여전히 싱가포르 여성들은 경제 활동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이중고를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특히 장시간 노동 시간으로 노동의 강도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싱가포르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5시간으로 2012년 현재 주당 40시간 근로하는 여성의 비중이 82.9%로서 일본의 44.9%, 한국의 68.5%보다 월등하게 높다. 강도 높은 싱가포르의 노동 환경 하에서 1980년대 이루어진 싱가포르의 출산 장려 운동은 여성으로 하여금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고 자녀 돌봄의 역할도 전적으로 여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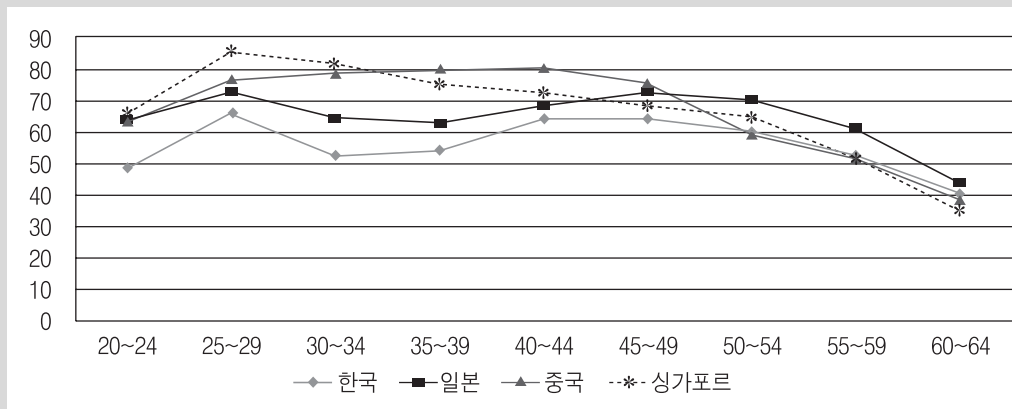
게 부여 했다는 점에서 여성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고 평가되고 있다³⁾. 싱가포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활동과 자녀 돌봄의 이중고는 생애 주기별 고용률 현황에 잘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싱가포르의 여성 생애 주기별 고용률은 25~29세에서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이후 결혼과 자녀 출산기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이후에도 다시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2013년 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s 개요

싱가포르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

그림 5. 여성의 생애주기별 고용률(2011년)

(단위: %)



주: OECD Family database 관련 지표: Chart LMF1.4A
 자료: 신윤정, 유재연, 김혜영, 윤자영(2013), 동아시아 국가 가족 정책 비교 연구: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

3) Lee, J., K. Campbell, and A. Chia(1994). The Three Paradoxes: Working Women in Singapore, Singapore: Association of Women for Action and Research.

는 정책은 M&P Packages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지원정책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기 위한 이민정책의 두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다문화 국가이면서 주변 국가로부터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싱가포르는 가족지원정책 정책과 함께 이민정책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돌봄 노동력 활용을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 통합 문제, 외국인과 내국인과의 경쟁 심화, 국가 정체성의 혼란 등의 문제로 인하여 출생을 통하여 내국민 인구를 증가시켜야 할 필요성도 절실하게 가지고 있다. M&P Packages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출산을 통하여 싱가포르 국민 수를 증가시키고 여성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M&P Packages는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M&P Packages는 싱가포르의 인구 정책이 출산 억제 정책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변화된 연도인 1987년부터 결혼, 출산, 양육과 관련한 5개 정책 영역으로부터 시작하였다. 2013년 현재 M&P Packages는 결혼 지원, 주거 지원,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 자녀 양육 지원, 일과 가정 생활 양립 지원, 아버지 양육 참여 지원 등 6개 분야로 확대되었다.

M&P Packages의 각 영역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들은 Central Provident Fund,

Medisave, MediShield 등 싱가포르의 기본적인 사회 정책 체계 하에서 관련된 해당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M&P Packages 추진의 총괄은 싱가포르 정부(Singapore Government)에서 인구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인 국가인구인재부서(National Population and Talent Division)가 맡고 있으며 총괄 책임자는 부총리(Deputy Prime Minister)이다. 이러한 정책 추진 체계를 볼 때 M&P Packages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저출산 영역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및 성장 동력 영역까지 포함한 4대 분야의 231개 사업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사업인데 반해 M&P Packages는 결혼, 출산, 양육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26개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⁴⁾. M&P Packages의 6개 분야의 정책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결혼 및 주거 지원

사회개발네트워크(Social Development Network:SDN)는 협력 기관과 허가받은 데이트 알선 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혼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주거 지원을 위해 주거개발부서(Housing Development Board: HDB)는 생애 최초로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이 신규로 분양하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제공하고

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95개 과제),”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78개 과제),” “성장동력 및 분야별 제도 개선(58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대한민국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장만하는 사람들은 Central Provident Fund(CPF)의 주택 보조금을 신청하여 주택 구입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동 주택 보조금은 가족 보조금, 추가적인 CPF 주택 보조금, 특별한 CPF 주택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녀를 가진 부부가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를 위하여 주거개발부서는 공급하는 주거 물량의 일정 공급 비율을 할당해 놓고 있으며 동 물량에 대해서 공급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생애 최초로 집을 장만하려는 유자녀 부부가 분양 신청한 집에 입주하기 전까지 주거개발부서가 제공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임신 및 출산 관련 모성 지원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 지원을 위해 Medisave 모성 지원은 자녀를 낳은 부부에게 임신과 출산기 동안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인공 임신을 원하는 부부는 인공 임신 시술비로서 1차 시술비 SG\$ 6,000, 2차 시술비 SG\$ 5,000, 3차 시술비 SG\$ 4,000을 Medisave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공공 병원에서 인공 생식 수술을 받는 경우 전체 비용의 75%까지 정부가 지원해 준다. 비냉동 시술과 냉동 시술 각각 세 번까지 정부가 지원해 주며 최대 지원 금액은 각각 SG\$ 6,300과 SG\$ 1,200이다. 2013년 1월 부터 한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부에게 까지 지원이 확대되었다. 공공 병원에서는 자녀 출산 순위에 따라 분만 비용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3) 자녀 양육 지원

자녀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으로서 첫째 혹은 둘째 자녀를 낳는 경우 일시불 SG\$ 6,000의 출산 축하금을 지원받고, 셋째 혹은 넷째아의 경우에는 일시불 SG\$ 8,000을 지원받는다. 이러한 출산 축하금은 과거에 첫째 혹은 둘째아에게 SG\$ 4,000, 셋째 혹은 넷째아에게 SG\$ 6,000을 지원하던 것에서 증액된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아동발달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CDA)에 저축하는 경우 정부는 첫째아와 둘째아의 경우 SG\$ 6,000까지, 셋째아와 넷째아의 경우 SG\$ 12,000까지, 다섯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SG\$ 18,000까지 매칭하여 계좌에 입금해 준다. 2013년 1월 1일부터 아동발달계좌 이용 기간이 6년 더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가 12세가 되는 12월 31일까지 아동발달계좌에 돈을 저축하고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신생아가 선천성 혹은 후천성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 MediShield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 공제로서 부모는 첫째아 SG\$ 5,000, 둘째아 SG\$ 10,000, 그 이상의 출생아에 대해서는 SG\$ 20,000을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다.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장애의 심각성에 따라 SG\$ 4,000 혹은 SG\$ 5,50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 여성은 자녀 양육 지원금으로서 본인 소득의 일정 비율을 받고 있는데 첫째아의 경우 본인 소득의 15%, 둘째아 20%, 셋째아 이상은 25%를 지원 받고 있다. 취업 여성이 12세 미만의 자녀를 조부모에게 맡겨 키우는 경우 조부모 자녀 양육 지원금으로서 SG\$ 3,000을 받는다. 보육 시설 이용에 대한 지

원금으로서 영아는 월 SG\$ 600까지, 유아는 월 SG\$ 3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2세 미만의 자녀, 조부모, 장애가 있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며 이들을 돌보기 위해 외국인 입주 재가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SG\$ 95를 지원받는다

4) 일과 가정 생활 양립 지원

출산전후 휴가로 취업 여성은 16주 동안의 유급 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Central Provident Fund 분담금을 포함한 휴가 급여는 정부와 고용주가 함께 지원하고 있다. 유아 자녀 양육 휴가로서 부부가 7세 미만의 적어도 한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1년 동안 부부 각각 6일의 유급 자녀 양육 휴가를 보낼 수 있다. 7~12세 자녀를 적어도 한 명 가지고 있는 경우 부부 각각 모두 일년간 2일의 유급 자녀 양육 휴가를 가질 수 있다. 7세 미만 자녀와 7~12세 자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부부가 일년 동안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유급 자녀 양육 휴가 일수는 부부 각각 6일이다. 2세 미만의 자녀를 적어도 한 명 가지고 있는 경우 부부 각각 일 년에 6일의 무급 휴가를 가질 수 있다.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 4주간의 유급 입양 휴가를 가질 수 있다. 취업 여성이 설명할 수 있는 이유로 인해 유산한 경우와 예정일 보다 먼저 조산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간제 여성 근로자 등 출산전후 휴가의 합법적인 대상자가 아닌 근로 여성도 출산 전 12개월 동안 적어도 90일간 일한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전후 휴가를 지원할 수 있다. 기업들은 회사 내의 일과 가정 생활 양립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필

요한 상담, 훈련, 기반 마련 비용을 Work-Life Works!(WoW!)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2013년 4월 1일부터 유연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한 노동 시간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5) 아버지 양육 참여 지원

아버지 양육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은 2013년 5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근로하는 아버지들은 1주일 동안의 유급 부성 휴가를 가질 수 있다. 근로하는 아버지들은 배우자에게 부여된 총 16주 동안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서 배우자의 동의 하에 1주일을 공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4. 시사점 및 향후 정책 방안

싱가포르의 M&P Package은 국내 인구 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아시아적인 환경에서 출산이 결혼한 부부 관계에서만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젊은층이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싱가포르는 젊은층의 혼인을 촉진하는 만남 주선 사업을 공적인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다. 만남 주선 사업이 공적인 분야에서 지원할 만한 사업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지만 인가 받은 기구 및 공공 시설에서 상업적이지 않은 건전한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이들이 서로 만나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표 1. 2013년도 싱가포르 '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 주요 내용

분야	정책 내용	2013년 도입 여부
결혼 지원	• 미혼자 만남 지원	기존 정책
주거 지원	• 생애최초 주택 보조금 지원	기존 정책
	• 유자녀 부부 생애최초 주택 지원	2013. 1. 1부터
	• 유자녀 부부 생애최초 임시 주거 지원	2013. 1. 1부터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 지원	• Medisave 모성 지원	기존 정책
	• Medisave 인공임신(ACP) 지원	기존 정책
	• Medisave 인공생식(ART) 지원	2013. 1. 1부터
	• 다자녀 분만 비용 지원	2013. 1. 1부터
자녀 양육 지원	• 자녀에 대한 현금 지원	2012. 8. 26부터 급여액 증액
	• Medisave 출생아 보조금	2012. 8. 26부터
	• 선천성 장애아에 대한 지원	2013. 3. 1부터
	• 자녀 세액 공제	기존 정책
	• 장애아 보조금 지원	기존 정책
	• 취업 여성 자녀 양육 지원금	기존 정책
	• 조부모 자녀 양육 지원금	기존 정책
	• 보육 시설 이용 지원금	기존 정책
	• 외국인 입주 재가도우미 지원금	기존 정책
일과 가정 양립 지원	• 출산전후휴가	기존 정책
	• 유아 자녀 양육 휴가	기존 정책
	• 영아 자녀 양육 휴가	기존 정책
	• 입양 자녀 양육 휴가	2013. 5. 1부터
	• 임신 여성 근로자 모성 보호 지원	2013. 5. 1부터
	• 시간제 여성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	2013. 1. 1부터
	•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Work-Life Works! Fund)	기존 정책
아버지 양육 참여 지원	•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	2013. 5. 1
	• 아버지 출산전후휴가 공유제	2013. 5. 1

자료: '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2013): 신윤정, 유재연, 김혜영, 윤자영(2013). 동아시아 국가 가족 정책 비교 연구: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에서 재구성

유용할 것으로 본다.

둘째, 싱가포르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영아 돌봄에 대해서는 시설 보육 보다는 조부모 등 친인척에 의한 재가 자녀 돌봄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하여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요성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영아 자녀 돌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양육 규범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인 욕구에 부응하여 조부모 자녀 양육 수당을 지원하고 외국인 재가 입주 도우미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아 자녀 돌봄에 대하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규범에 대한 고려 없이 시설 보육으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부모들이 영아 자녀 돌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사회적인 필요성을 고려하여 영아 양육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남성의 육아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싱가포르는 1주일간의 유급 부성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 휴가는 총 5일에 3일만 유급으로 지원하고 있어 휴가 기간과 급여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배우자 출산 휴가를 1주일 정도를 확대하고 유급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배우자의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1주일을 배우자의 동의하에 남성이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출산 전후를 즈음하여 출산한 배우자의 임신, 출산, 산후조리와 관련하여 남성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가 많으므로 모성 보호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기간 동안을 남성 배우자와 함께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싱가포르의 M&P Package 정책은 Central Provident Fund, MediShield, 아동 발달

계좌 등 기존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신, 출산, 양육 지원 분야의 핵심적인 사업들을 "Package"화 한 내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3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저출산 부문 사업은 수 많은 정책의 백화점식 나열 보다는 임신, 출산, 양육과 직접적으로 중요한 관련이 있는 핵심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정책 추진 과정과 결과를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체계를 재구조화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족지원정책 정책을 통한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 생산 동력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M&P Package 정책을 통한 출산율 제고의 한계성을 인식한 싱가포르는 동 정책 패키지에서의 일과 가정 생활 양립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여성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별도의 이민 정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내 인구 정책도 출산율 제고와 더불어 향후 미래 사회에서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잠재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여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